



언론의 농업 보도에 농민이 없다

- 농민신문 주최 '한국 언론에는 농업이 없다' 토론회 내용 정리 -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직전 이었던 지난 2월 초, 각 중앙언론사들은 연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연으로 칠레 및 중남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와 국가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점이 큰 상황”이라고 앞다투어 보도했다. 2월 9일과 16일 여의도에서 열렸던 농민들의 FTA 비준 저지 집회를 보도한 방송사들은 한결같이 “농민들의 과격 시

위로 기물파손 및 교통 차단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및 피해가 극심했다”며 농민시위가 마치 과격·폭력성으로만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왜 ‘여의도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농민들을 극단적인 생존권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한-칠레 FTA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 보도나 대안 제시는 너무나 미흡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한-칠레 FTA

한-칠레 FTA 비준 직전 방송 3사의 보도 사례

KBS

- 신장범 주 칠레 대사와 슈미트 주한 칠레 대사의 입을 빌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 표명

MBC

- 한-칠레 FTA 비준 무산시 ‘통상 미아’가 될 것이라며 불안 조장

SBS

- 재계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의 입을 빌어 ‘대외신인도 하락, ‘수출차질’ 우려 표명

한-칠레 FTA 비준 저지 농민시위 관련 방송사 보도 주요 내용

- 농민과 경찰간의 격렬한 충돌…여의도는 한때 전쟁터와 같은 모습 (SBS)
- 연기 사이로 경찰과 농민들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KBS)
-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국회 앞은 유혈이 낭자한 전쟁터 (MBC)
- 농민들이 돌과 빈 병을 던지며 각목을 휘두르자 경찰은 물대포로 맞서, 일부 농민 불을 지르기도 (SBS)
- 물대포를 쏘는 경찰에 농민들은 돌과 빈 병 세례, 시위가 격해지면서 일반 주차차량이 불타거나 부서지고 여의도 공원에 불 (KBS)
- 시위대는…지하철 공사장에 불을 지르기 시작…물대포가 시위대의 머리 위로 뿜어졌고 시위대가 던진 돌은 경찰을 향해 비오듯 날아 (MBC)

(자료 :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비준 전후 언론사들의 각종 보도가 지닌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른바 ‘메이저신문사’로 불리는 거대 일간지들의 편파 보도양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7일의 한-칠레 FTA 관련 언론보도 긴급 토론회에서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조선일보 기사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62건의 FTA 관련기사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61건의 기사가 모두 FTA 비준을 찬성하는 내용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나머지 한 건도 기사가 아닌, 독자투고란에 실린 한 농민의 기고문뿐이었다. 이 때문에 농업전문 언론사들은 물론, 중앙언론 관련 종사자들까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관련 언론보도의 편파성이 심각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미 “월간 한농연”은 작년 7월호 지면을 통해 한-칠레 FTA 및 농업관련 보도가 가지는 문제점

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한농연 등의 농민단체들이 제기해 왔던 중앙언론의 농업관련 보도에 대한 분석·대응은 1회성·비전문적 형태에 그쳤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문제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지난 6월 1일 농민신문 및 민언련은 「한국언론에는 농업이 없다 - 농업개방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중앙언론사의 농업관련 기사를 포함하여, 언론학 전공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농업 문제에 대한 중앙언론의 무관심과 왜곡·편파 보도의 심각한 현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또한 이같은 잘못된 보도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계 및 언론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져 많은 성과를 거둔 토론회였다. 본 연합회에서는 탁명구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한국 언론의 농업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민의 입장을 고려한 보도 및 논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은 발표 자료집과 농민신문·연합뉴스 기사를 주로 참조하였음)

● 제1주제 - 농업 외면하는 언론

● 김 영 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촌경제에 태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화 유예든지 상관없이 쌀시장 개방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문제다. 하지만 중앙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통해서도 미풍도 감지하기 어렵다.

지난 10년간 신문은 지면이 3~5배 늘어났으며, 방송은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 전달과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담긴 농업관련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는 농업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농민들의 집단시위와 시장개방을 빼놓고는 일 년 내내 농업기사를 쓰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리자 언론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농촌은 직

격탄을 맞는다, 초토화된다'며 걱정하는 투로 나왔다. 이후 막상 칸쿰 협상이 결렬되자, 언론들은 한결같이 '공산품 수출을 늘릴 기회를 놓쳤다'는 식으로 아쉬워했다. 마치 농업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인 양 보도한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보수적인 계층은 농민이다. 그런데 언론보도만 보면 이 나라에서는 농민이 가장 과격한 세력처럼 비친다. '왜 농민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농민들이 적자영농과 농정실패를 목청 높여 호소해봐야 우리 언론들은 들은 척 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들의 농업관련 보도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므로, 농민들은 농정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세력을 규합하여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과격하게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다 피해가 나야, 언론은 그제서야 사건 기사라도 다루기 때문이다. 언론의 무관심이 농민시위의 과격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제2주제-쌀 관련 신문보도 분석결과

● 윤 석 원 <중앙대 교수>

올해 1월 초부터 5월 5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조선·중앙·동아·경향·문화·한겨레 등 6개

신문을 대상으로 쌀 개방 관련 기사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쌀 관련 총 보도건수는 19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달 평균 38건으로 1개 일간지당 한 달 보도건수가 6~7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나마 논평없이 단순하게 사실만 보도한 것이 93건으로 48.2%에 달해 중요성에 비해 쌀 관련 보도자체가 매우 적고 단순보도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동아는 다른 신문에 비해 단순보도 비율이 높았고 문화·경향·한겨레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가 쌀 시장 개방(관세화)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동아·경향은 '쌀 협상이 결렬되면 자동으로 관세화된다'는 '자동관세화론'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쌀 농업의 중요성이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쌀 농업위기의 본질 등에 관한 보도는 신문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쌀 산업과 농업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신문은 한겨레와 문화이며, 매우 낮은 신문은 조선·중앙·동아라고 판단된다. 특히 중앙은 전혀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추곡수매값 4% 인하와 관련해 농민들의 성명서나 저항의 목소리는 모든 신문이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고 생산비가 19%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단순보도에 그쳤다.

● 제3주제-농업개방 관련 TV뉴스 분석결과

● 박 응 진 <한국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까지 16개월 동안 <KBS 뉴스 9><MBC 뉴스데스크><SBS 8 뉴스> 등 방송 3사의 저녁 종합뉴스에서 보도된 농업개방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이 기간 중 방영된 농업개방 관련 뉴스는 모두 133건으로 전체 기사 5만5,000건의 0.2%에 불과했다. 방송사별로는 KBS와 SBS가 50건, 49건으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MBC는 34건으로 적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특정한 사안 발생시 이를 기획기사 형식으로 연속화해 집중 보도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방송 3사의 홈페이지 속보란이나 5시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농업개방 뉴스가 8시 혹은 9시 대의 저녁 종합뉴스에는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도 형식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층 분석 보도가 부족했고, 대부분 현상만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순한 사건 전달 위주의 보도물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농업개방 문제가 지니는 본질적인 내용들은 없고, 농민들의 진정한 주장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TV 뉴스가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뉴스 내용을 개방, 반개방, 농업경쟁력 혁신, 법·질서 등 8개 분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개방에 찬성하는 내용은 KBS 9건, MBC 4건, SBS 9건인 데 반해, 개방 반대에 관한 내용은 각각 4건, 3건, 6건으로 개방 찬성 뉴스 비율이 단연 높았다. 이는 방송 3사가 '농업개방 문제를 이미 대세'라고 판단해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방송 3사는 약속이나 한 듯 한·칠레 FTA 반대 농민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전체 보도물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위 보도와 함께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강조하여, 농업개방 반대 시위에 대한 일반 시청자들의 반감을 자극하고 있다.

반면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농업개방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KBS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언론은 농업 개방이 대세라고 국민들에게 집중 보도함으로써, 대외 협상에 나서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문가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토론내용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언론이 국익을 볼모로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 농업 관련 각종 통계치를 심층 분석 없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경쟁력 제고·틈새농업·벤처농업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차라리 '언론이 농업에 아예 무관심했으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언론은 정치·경제적인 약자인 농민을 배려하고, 농업보호에 우호적인 여론을 도출하는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

◆박철연 농민신문 논설실장 = 오늘 발표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청와대와 정치권, 주요 기관 등에 전했으면 좋겠다. 농산물 값이 약간만 올라도 언론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농정의 방향이 맞는지, 왜 농가 빛이 느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고쳐하지도 않는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논리를 언론은 그대로 퍼뜨리고 있다. 소농을 대도시 빈민으로 내몰고, 장기 저장과 수송으로 공급되는 농식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까지 해치게 만드는 다국적기업의 농업 개방 논리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

◆이재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작 언론으로 하여금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편파보도가 안 되도록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이들에게 무턱대고 농업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일단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민농연**